지리산 성삼재 ~ 정령치 횡단도로 이용 차량

동·식물 생태계 파괴 심각

미세먼지 농도 서울보다 높고 로드킬 악명
일반 차량 통제·친환경 셔틀버스 도입해야

지리산국립공원 내 성삼재·정령치 부근 횡단도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전문연구용역업체인 ㈜동일기술공사에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도로이용체계 개선계획 연구'를 의뢰, 지난해 3월부터 열 달 동안 조사한 결과 지리산 횡단도로를 오가는 연간 수십만대 차량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 서울보다 높아= 지난해 7월28~30일, 10월26~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일간 지리산국립공원(이하 공원) 일대의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40만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 성삼재 휴게소가 서울시 월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인 60㎍/㎥보다 무려 40㎍/㎥ 가량 높은 101.1㎍/㎥(일평균)를 기록했다. 2차선 도로와 주차장이 인접해 있고 차량이동이 많은 성삼재 휴게소는 대기환경 기준(100㎍/㎥)도 초과하는 등 차량 배기가스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납(Pb)도 도로 지역에서 0.023~0.043㎍/㎥으로 나타나 대기환경기준(연평균 0.5㎍/㎥) 보다는 낮았지만, 대조군 지역(공원 노고단 대피소·0.010㎍/㎥)보다는 2~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속적으로 오염도가 축적될 경우 공원 도로 주변의 토양과 식물체에 환경오염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공원 도로 일대 차량 소음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공원 시암재 동물이동 통로는 62.9dB로 소음환경기준(65dB)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대조군 지역(46.1dB)에 비해 16.2dB 높게 측정돼 사람에 비해 소리에 민감한 야생동물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

공원 도로 주변에서는 수십 종의 귀화식물까지 자라고 있었다. 성삼재 통과도로변에서 13과(科) 35속(屬) 45종(種)의 귀화식물(歸化植物)이 조사되는 등 공원 도로변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식물생태계 교란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서울 남산(52종), 중랑천(46종), 고속도로변(65종)과 비슷한 수치로 도로 건설의 영향으로 도심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식물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드킬(Road kill) 갈수록 증가= 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현상은 2005년 112건에서 2006년 145건, 2007년(11월까지) 137건이 조사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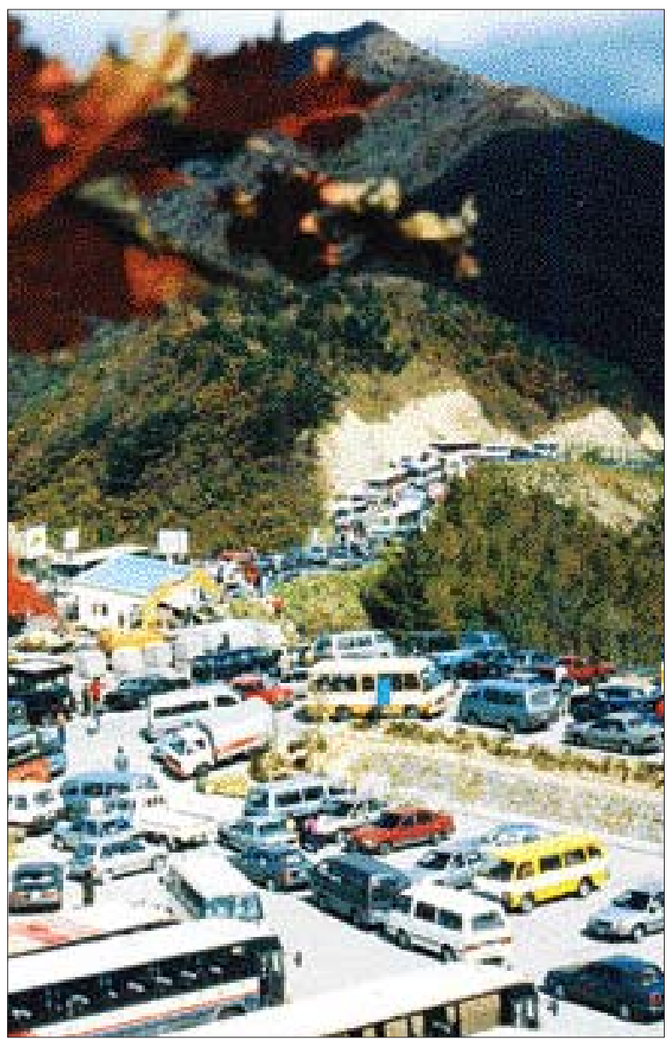
이는 공원 내 도로 건설로 인한 산림의 조각화 현상과 맞닿아 있다. 공원이 하나의 연속된 서식지가 아니라 많은 도로와 탐방로로 인해 분리되는 작은 서식지로 나눠져 있는 탓이다.

공원 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탐방로와 비법정 탐방로가 549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산림의 조각화는 산림 내부 면적을 크게 감소 시킬 뿐 아니라 조각간의 연결성을 감소시켜 종의 생존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야생동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을 지양해야 하고 서식지 조각화의 정도와 형태에 대한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태계 파괴 막기 위해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해야=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지리산 횡단도로에 일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대안 교통수단으로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방도 737호선 기점인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지방도 861호선 기점인 구례군 천은사 입구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반선 달궁마을 앞 등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대신 셔틀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성삼재~정령치간 횡단도로를 오가는 연간 40만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행락객들을 실은 차량으로 가득찬 성삼재 주차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녹색의 땅' 전남 숲 더 푸르게

내달부터 숲 가꾸기 착수
연 인원 85만명 고용 효과

'녹색의 땅 전남을 더 푸르게 가꾸고 일자리도 창출한다.'

전남도가 2008년도 산림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숲가꾸기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등을 2월부터 추진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숲가꾸기 사업 등이 실시되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연인원 84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숲가꾸기 사업은 고용창출과 함께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다양한 생물종을 발생시켜 하층식생이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생태적 건강성이 높아지고 나무의 생장량 증가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질 뿐만 아니라 57억t 수자원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산림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사업별 신청 자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자격 및 기준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일반 숲가꾸기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2월부터 도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유적지, 집단 조림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설 전후 환경오염 사업장 특별 단속

광주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설 전후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

시는 29일 "설 연휴를 전후해 평소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폐기물을 몰래 내보내는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돼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연휴 기간인 다음달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시와 5개 자치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공단 주변 하천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11일부터 15일까지는 가동이 중단됐던 환경 관련 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내보낸 5개 사업장이 적발돼 행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환경 오염 행위가 눈에 띄면 시 환경신문고(전화 128)로 신고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주한미군 머문자리 '죽음의 땅'

파주 캠프 등 반환기지 12곳 환경오염 실태 공개

유류·중금속 오염 기준치 최대 70배 초과

국방부는 29일 주한 미군이 사용하다 정부에 반환한 경기도 파주시 캠프 하우스와 캠프 스탠턴의 환경오염 실태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달 20일부터 한달 넘게 각 지자체별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반환 미군기지 12곳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공개는 모두 마무리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조사한 기지별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화계획을 설명했다.

정밀조사 결과 파주 캠프 에드워드, 캠프 자이언트, 캠프 하우스, 캠프 스탠턴, 의정부 캠프 시어즈, 캠프 에세이욘, 동두천 캠프 님블, 하남 캠프 콜번, 화성 매향리 사격장 등 공개된 모든 기지가 총석유계탄화수소(TPH) 오염 기준치(500㎎/㎏)를 최대 70배 초과하는 등 유류와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대부분은 유류저장탱크 배관 및 연결부위 부식 등 유류시설 관리 소홀로 이뤄진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했다.

지하수 오염은 일부 기지의 경우 기름 두께가 최대 24㎝, TPH 오염농도가 기준치(1.5㎎/ℓ)의 150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반환된 23곳 전체 기지의 토양오염을 치유하는 데 최소 276억원에서 최대 1천1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영산강·섬진강 수질보전사업 공모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2008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를 받게 된다.

지원 사업분야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모니터링 활동,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교육과 홍보활동 등이다.

지원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인 33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할 수 있으며 지원 단체별 사업계획 설명회와 환경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 총 예산 2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아파트 입주민 10명 중 3명 '새집증후군'

환경부, 설문조사

아파트 입주민 10명 중 3명이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5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528명에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7명(29.8%)이 새집증후군을 경험해 봤으며, 그 중 39명(25%)은 이로 인해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증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한 증상이 64.4%로 가장 많았다.

입주민들은 실내공기질에 대해 37.4%(198명)가 만족하며, 15.5%(82명)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오염 원인으로 ▲주택자재 및 마감재 ▲새로 구입한 가구 등 생활용품 ▲밀폐된 실내공간 등을 꼽았다.

또 입주민들은 입주시 실내공기질을 매우 중요(93.9%·496명)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택선택시에도 이를 따지는 주민이 93.5%(494명)에 달했다.

한편 만족도 조사의 경우 지난 2006년 설문조사(31.4%)보다 6% 증가했으며,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입주민도 지난 조사(35.9%)보다 6.1% 감소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입주환경은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